

기록적 폭설·한파에 손보사 노심초사… “손해율 상승 불가피”

4~10일 車사고접수 10만8685건
같은기간 긴급출동 100만건 이상
손해율 적정수치 80% 돌파 우려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자 손해보험사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폭설과 한파로 인한 차 사고가 늘어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최근 폭설로 차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손해보험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 11개 손보사(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DB, AXA, 하나)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건수는 10만8685건을 기록했다. 전주인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9만4328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만4357건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6일 저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도로에 눈이 쌓여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폭설 다음날인 7일에는 2만 1026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과 9일에도 각각 1만7347건, 1만3067이 접수됐다. 10일까지도 7185건의 사고접수가 접수됐다. 폭설이 끝나도 한동안은 차 사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긴급출동 서비스 건수도

109만7385건으로 100만건을 돌파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손해율도 줄었던 손보사는 연초 갑작스러운 폭설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를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외부활동이 줄어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각각 86.5%, 87%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에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100.2%와 비교하면 손해율이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연초부터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면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정 수치인 80%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이동이 줄어들며 작년 대비 손해율이 개선됐던 손보사들은 현재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상악화는 뚜렷한 대처 방안이 없어 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겨울은 손해율이 높은 계절이지만 이번 겨울은 유독 손해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김희주 기자

금융감독원 車보험료 변동 간편조회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 이유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 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재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만기가 한 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재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을 알 수 있다.

조회시스템에서는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도 제공한다. 사고건수를 비롯해 범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전계약 대비 현재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 및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후 보험료 등도 알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김기환 “현장 목소리 집중, 미래지향적 보험사 기반 확보”

(KB손해보험 사장)

KB손해보험 경영전략회의

경영진·직원, 화상연결 소통
‘영업·디지털·고객·1등’ 키워드 선정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KB손해보험은 13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임직원은 물론 영업 현장의 설계사(LC·Life Consultant)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2021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김기환 신임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KB손해보험 본사 스튜디오에서 화상 연결된 직원 패널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국 영업점의 LC들도 전화 인터뷰와 유튜브 생중계 시청을 통해 경영전략회의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만 참여한다는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이 13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임직원과 영업현장의 설계사 등 모두가 함께하는 ‘2021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B손해보험

고정관념을 깨고 영업 현장과 함께 회사의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2021년, KB손해보험을 말하다’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영업’, ‘디지털’, ‘고객’, ‘1등’을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하고 임직원, LC, 고객 등 다양한 계층을 온라인으로 초대해 키워드별 주요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KB손해보험은 새롭게 맞이 하는

2021년의 경영계획 수립 방향을 ‘미래지향의 본업 펀더멘털 턴어라운드 가속 및 디지털 기반 신성장동력 선점’으로 설정하고 ▲가치경영 기반의 확고한 M/S 성장 ▲디지털 역량 업계 1위 실현 ▲미래성장채널 운영전략 차별화 ▲ESG경영 선도 ▲HR 및 조직 혁신과 신사업 성공적 진출 등을 핵심 과제로 해 KB금융그룹 보험 부문을 리딩하는

미래지향적 보험사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기환 사장은 온라인으로 임직원과 영업 현장의 LC들에게 주요 경영 방침을 공유하며 “새롭게 부임해 가장 먼저 약속했던 ‘철저한 현장과 실무 중심의 경영’을 지키고자 영업 현장과 함께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준비했다”며 “영업 현장의 LC 분들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KB손해보험의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기환 사장은 “2톤(t) 무게의 플라잉휠을 움직일 때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일정 단계를 돌파하면 관성이 붙어 오히려 무거운 무게가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이처럼 성공의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열망과 치열함으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한다면 KB손해보험은 충분히 1등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지연 기자

銀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한은 금융기관대출행태 서베이결과

올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기업과 가계를 불분하고 대출이 급증하면서 신용위험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올해 1분기 대출태도지수는 -8로 나타났다.

대출태도지수(100~-100)는 국내 201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플러스(+)인 경우 대출태도를 완화, 마이너스(-)인 경우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은행은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에 대해 간간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분기 중 국내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실적악화 우려 업종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만기연장 요건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태도가 소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역대급 코스피에 보험업계 好好… 변액보험료 3兆시대 눈앞

지난해 3분기 초회보험료 2조939억

코스피 3000시대를 맞아 보험업계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가 3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주식시장 호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변액보험에 대한 인기도 뜨거울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생보사 24곳의 분기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1분기 5954억원, 2분기

1조855억원, 3분기 2조93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눈길을 모았다. 특히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가 2조원을 웃돈 건 2013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개별생보사 중에는 미래에셋생명이 1조2635억원으로 생보사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푸르덴셜생명이 2101억6700만원을 달성했다. 메트라이프생명과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각각 1799억7400만원, 1362억6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투자 성과를 보험금에 반영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특히 국내 변액보험 상품의 절반 가까이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에 투자되고 있어 추가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액보험은 주가와 채권값이 오르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장점을 가진다.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만큼 업계에서는 변액보험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3분기 변액보험 초회보



지난 6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험료가 2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분기 기준 3조원 돌파가 무난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증시 호황이 이어진다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백지연 기자